

근대화이론과 농촌환경문제 : 진화적 변동론에서 순환적 변동론으로

강재태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Modernization Theory and Rural Environmental Problem: From 'Progressive Social Change Theory' toward 'Circular Social Change Theory'

Jae Tae Kang

College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ummar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st four decades after 'World War II', was the 'discovery of famine' in the underdeveloped country, like Korea. A flurry of activities followed this sad discovery. Countless organizations and programs were set up to fight poverty and to combat famine in rural sector. In these days, the dominant development theory was 'modernization theory' which have gratuitously assumed that third world countries are like western countries are, and respond to the same stimuli as western countries do, although third world countries have completely different cultures, traditions, and mentality from western countries.

Among the many problems caused by 'modernization theory',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rural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West the discovery of nature and its progressive control by means of science and technology are phenomena. Modern progress born in the West and carried to the rest of the world is not integrally positive and therefore can't be identified with the internal development of man and nature. As a result, the so-called modernization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is contributing to the degradation of the nature and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give up the illusion that the fight against famine is a simple matter that could be solved through the imitation of western countries. It is also necessary to abandon the belief that the earth as a reservoir of unlimited resources, there to be exploited ad hoc for mankind's survival. Man-environment relationship must, essentially, be one of mutualism and not a case of survival of the fittest: In other words, man's survival is directly related to the survival of the earth and its resources.

I. 서론

1950년대 이래 '근대화', '발전'¹⁾이라는 개념만큼 세계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 개념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

1. 문제의 제기

1) 흔히 '발전'과 '근대화'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발전이 하나의 일반 개념이라면, 근대화는 역사성

화, 발전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개편된 국제질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서구자본주의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서부터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이 '제3세계'로 등장하면서 이들 사회들이 당면한 문제들, 즉 선진자본주의 국가와 경제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적 자주 및 경제적 자립 등을 추구해야 하는 문제들이 바로 근대화 혹은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된 것이다.²⁾

우리 나라 역시 이런 세계사적인 조류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1960년대 '조국근대화'의 기치 아래 일련의 경제개발계획들 및 농촌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추진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기가 어떻든 우리는 보릿고개로 대변되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숨 가쁘게 약 30년간의 발전의 연대를 달려왔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세계가 놀라워하는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도리어 예기치 못한 측면에서 심각하게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환경위기', '생태계의 위기', '자연파괴'라는 말들과, 이에 대응하는 '자연보존', '환경보호'라는 낱말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더 나아가 환경문제에

관한 상대적 우위를 지녔던 농촌 지역에서까지도 화학비료, 농약, 축산폐수 등의 폐해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등, 환경문제가 야기할 전방위적 파국에 대한 경계심리가 광범하게 퍼져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들어 농촌개발 분야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그런 논의의 대강은 환경문제를 염두에 둔 농촌개발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성장과 개발위주의 전략을 당연시해 온, 그래서 오늘 날의 환경문제 발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인식해야 하는 농촌개발 관련자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환이고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환, 제 지향은 실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어찌보면 농촌개발이 안고 있는 영원한 딜레마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는 부족한 식량의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영농, 기계화영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반면,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영농 방식 그 자체가 농촌 환경의 오염과 파괴의 주범이기 때문이다.³⁾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외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생산의 세계'와 '환경의 세계'를 하나로 꿰는 사

이 것들어 있는 혹은 시대성이 내재되어 있는 변동개념이다. 즉, 발전이란 개념은 비단 현대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의 사회변동은 물론 미래의 변동까지 묘사하고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modernization)라는 말은 서양의 17-8세기 사학자들이 그들의 역사를 시대 구분할 때, 고대, 중세와 구별하기 위하여 1500 A.D.를 중심으로 쓰기 시작한 근세(modern era)라는 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그 전의 변동은 그것이 발전적인 성격을 띤 것이라 할지라도 근대화는 아닌 것이며, 뿐만 아니라 발전은 사회구조의 변동에 국한되지만, 근대화는 그 내용에 있어서 포괄적인 사회문화의 변동을 뜻한다(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사회학적 관심, 서울: 박영사, 1986, 504쪽).

2) 고영복, 한근자, 사회학개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87, 380쪽.

3) 일례를 들어 보자. 오늘의 농촌은 식량문제의 해결이라는 현실 여건 아래서 최대생산을 내다 보며 編化學的 기술 향상에 주력한 결과 이제 공장 농업(industrial agriculture)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방충제, 제초제 등 화학물질의 남용은 식량 증산과 노력절감에 공헌하였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생태계의 순환을 차단하는 새로운 환경오염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단작이 아닌 윤작, 토양의 보전, 경종과 축산의 결합, 병해충 종합관리, 적절한 기계경운 등을 통해 농업생산의 지속적 증가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종래 우리의 농촌개발 전략이 기반을 두었던 '근대화이론'이 환경문제의 발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근대화이론이 농촌환경문제의 발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근대화 이론이 추구하는 산업화, 도시화, 세속화 및 과학영농 등과 환경문제와의 관계 등이 그러한 사례일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연구의 축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근대화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 직선적 시간관의, 즉 세상은 단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특히 서구화 되어 가는 것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이 가지는 환경론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⁴⁾

이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인간은 시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시간관이 사회변동의 해석에서는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둘째, 근대화 이론은 어떤 특징을 가지며, 근대화 이론의 직선적 시간관의 문제는 무엇인가?

셋째, 근대화 이론의 직선적 시간관은 농촌 지역의 환경문제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넷째, 순환적 시간관의 회복은 환경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II. 시간관과 사회변동의 두 이론

사회변동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요소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변동에서 시간이란 개념이 중요해 지는데, 시간의 인식과 관련하여 그 심층구조는 단 두 가지의 모습으로 압축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원이요, 다른 하나는 직선이다. 다양한 시간의 모습이 이 두 가지의 심층구조의 복합태로서 현현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나 역사의 변동 모습도 순환론적 모델과 진화론적 모델⁵⁾로 대별되고 있다.

그런데 김성수와 송용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속적 농업을 시현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지속적 농업기술을 채택했을 경우 화학비료와 농약의 투입 등을 최소화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작물의 생산성이 감소할 것인데 어느 정도 감소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식량자급과 농산물 시장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검토가 없다. 특히 생산량 감소에 따라 수익성이 저하될 경우 농민들이 지속적 농업을 채택할지는 의문스러우며, 인구에 비하여 농토가 상대적으로 좁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다 같이 낮은 지속적 농업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적 농업은 비교적 저렴한 비료나 농약 등을 적게 사용하는 대신 비싼 노동력의 대체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점차 고령화, 부녀화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우리 실정에서 대다수 농민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지속적 농업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지속적 농업은 타당성만 입증되었을 뿐 수익성있는 농업경영의 형태와 이의 실현을 위한 기술체계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성수, 송용섭, "농촌지도사업과 환경 보전,"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 26권 제4호, 1994, 35~36쪽).

- 4) 김용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즉 천지는 순환인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문명은 직선입니다. 이 천지의 순환과 문명의 직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데서 오늘날 에콜로지(환경파괴론)를 포함한 문명의 모든 문제가 파생되었습니다" (김용옥, 대화, 서울: 통나무, 1991, 193쪽) 라고 하였다. 이 연구도 이런 기초에서 출발하였다.
- 5) 직선으로서 인간세의 역사를 파악할 때는 대부분 종말을 향한 어떤 가치관의 직선체계가 성립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가치관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더 나빠진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선적 시간관을 신념으로

1. 순환적 시간관과 직선적 시간관

우리는 자연현상 속에서 순환적 시간과 직선적 시간을 동시에 인지할 수 있다. 원(순환)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우리 몸의 내재적 순환에서부터 시작하여 밤낮의 교체, 계절의 순환, 천체에 나타나는 별들의 운행 등 천지의 외재적 순환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자연의 움직임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사실, 잠이 온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순환적 시간관을 가지게 된다. 반면에 우리는 삶과 죽음을 통해서 시간을 직선적으로 인지하게도 된다. 인간이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은 시간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흐름의 모양새를 직선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 직선적 시간의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사관의 창조론과 종말론이다. 창조가 있으면 반드시 종말이 있게 마련이고 종말이 있으면 반드시 창조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가 순환⁶⁾으로서 시간이나 역사를 파악할 때는 시작이나 끝이 생겨나지 않는다. 따라서 순환의 역사에는 창조론이나 종말론 같은 것이 없다. '始終無斷'의 '生生之道'만이 있을 뿐인데 이러한 사관의

대표적인 것이 중국고문명에서 경전화된 '周易'이다.⁷⁾

2. 순환론적 사회변동론과 발전(진화)론적 사회변동론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은 순환과 직선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변동과 사회발전의 법칙성을 찾는 학자들의 견해도 크게 순환론과 직선론으로 대비되고 있다. 즉,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이 지속적인 流轉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인류는 문명을 파멸시키기 위해 무모하게 돌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든지 식의 견해로 나뉘어지고 있다.

1) 순환론적 사회변동론

순환론적 관점에서 사회변동을 보는 학자들은 사회나 문명이 성장과 쇠퇴의 반복적 과정을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설명한다. 과거 중국이나 인도, 우리 나라에서는 순환론적 관념이 성행하였다. 음양오행설에 의하면 우주의 작용은 정해진 유형을 따라 음과 양의 두 극단 사이를 오가며 진행한다고 보며, 불교의 윤회사상도 순

가지는 학자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인류의 역사를 조망하기에, 사회변동론은 흔히 순환론과 진화론(또는 발전론)으로 대비된다.

- 6) 김용옥은 흔히들 순환을 반복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순환은 中庸의 표현을 빌리면 '時中'일 뿐이며 순환 그 자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반복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즉, 그는 순환이란 모든 몸의 체계를 시간 속에서 지속시키는 리듬의 역동성인데 비해, 반복이란 직선상의 두 개 이상의 시점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상태의 현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순환속엔 반복이 없고, 모든 순환은 원과 직선의 妙合이라고 주장하였다(김용옥, 도올세설, 서울: 통나무, 1990, 127쪽).
- 7) 김용옥은 "인간의 시간인식은 무한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deepstructure(심층구조)는 두 개 뿐이다. 그것은 순환(원)과 직선이다. 인간의 모든 시간인식은 이 두 개의 결합의 변주양식이다. 목시론적, 종말론적 시간은 직선이다. 농경적 시간은 순환이다. 천체의 시간도 대개 순환적이다. 헤겔의 변증법적 시간도 결국 이 두 개를 짝쌍시킨 것이다. 그런데 헤겔은 순환을 직선에 종속시켰다. 허나 불교도들이나 힌두교의 사람들은 직선을 순환에 종속시켰다. ...인간이란 동물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필연성(mortality)의 인식이야말로 직선적 시간인식의 궁극적 원인이다. 생체의 homeostasis(恒常性) 싸이클이야말로 순환적 시간인식의 궁극적 원인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개의 실체(entity)가 아니다. 동일한 몸의 다른 두 측면(aspect)일 뿐이다"라고 하였다(김용옥, 기철학의 구조: 백두산신곡, 서울: 통나무, 1990, 117-118쪽).

환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일부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들 역시 순환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체계적인 순환론을 주장한 사람으로 흔히 14세기 아랍의 학자인 이븐 할둔(E. Khaldun)을 꼽는다. 그는 유목민인 베두인과 정착민간의 갈등과 충돌에 입각하여 아랍의 역사를 분석한 결과, 강한 연대성과 혈족적 결속을 가진 유목민이 정주민을 점령하여 제국을 성립하지만, 곧 악덕과 무능의 상태로 타락하고, 다시 새로운 사막 유목민 세대의 수중에 떨어지는, 즉 역사는 성장과 쇠퇴, 정복과 붕괴의 연속적인 순환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였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A. Toynbee) 역시 인류의 문명은 탄생, 성장, 붕괴, 해체라는 지속적 순환의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파레토(V. Pareto)의 '엘리트의 순환', 독일의 슈펜글러(O. Spengler)의 서구의 몰락이라는 견해 등도 순환론적 사회변동론으로 해석되고 있다.⁸⁾

2) 진화론적 사회변동론

진화론적 관점에 있는 학자들은 모든 사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진보 또는 발전해 나가며, 각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더욱 복잡하고 분화된 단계라는 입장을 취한다. 원래 진화론은 다윈의 유명한 '종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통해 소개된 생물학적 이론이다. 모든 생물이 단순한 것에서 보다 복잡한 것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데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사회학자 콩트(A. Comte)이다. 그는 인간정신과 사회가 세 가지 단계를 밟아 발전한다고 보았다. 즉 모든 현상을 그 궁극적 원인이라 믿어지는 초자연적 신성

에 의하여 설명하려는 '신학적 단계', 현상세계를 신의 의지 대신에 이성적 능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추상적 힘으로 설명하려는 '형이상학적 단계', 그리고 더 이상 초월적 신성이나 추상적인 힘과 같은 궁극적 본질에 의존하지 않고 관찰과 실험 및 비교를 통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험적 사실들간의 법칙적 관계를 수립하려는 '실증적 단계'로 발전한다는 것이다.⁹⁾

이런 진화론적 역사관은 콩트이후 진보의 역사를 방편적으로 몇 단계로 나누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 초기의 대표로서 독일의 학자인 리스트(F. List)를 들 수 있다. 그는 제국민의 경제발전을 1) 야만상태, 2)목축상태, 3)농업상태, 4)농공상태, 5)농공상상태의 5단계로 분류했다. 이러한 역사학파의 발전단계설은 후기에 올수록 유형개념으로 발전하여 그 실천적 의욕을 약화시켰는데 그 결합의 근거는 하나의 단계로부터 다음의 단계로, 하나의 구조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조연관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 양자를 통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필연적 운동법칙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었다. 이러한 법칙을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관계의 모순으로부터 발생하는 생산양식의 변증법적 발전원리에서 구하여 그것을 발전 전체의 기본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맑스(K. Marx)이다. 그는 1) 원시공산제, 2) 노예제, 3) 봉건제, 4) 자본제, 5) 공산제의 5단계의 역사 발전단계를 제시하였는데, 1)에서 5)로 나아가는 역사는 분명히 직선사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직선은 가치론적인 의미가 1)에서 5)로 갈수록 분명히 좋아진다는 뉴앙스를 깔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며, 그 진보는 필연적이어서 과학적이기까지 하다는 것이며,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5단계의 필연적 과정

8) 김경동, 앞의 책, 460-467쪽; 오갑환, 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박영사, 1980; R. H. Lauer (저), 정근식, 김해식(역),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변동의 유형, 메카니즘, 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4, 51-75쪽; 민경배, 신세대를 위한 사회학 나들이, 서울: 나남, 265-267쪽 등을 참조.

9) 민경배, 앞의 책, 268-271쪽.

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¹⁰⁾

3) 두 변동이론의 비교

이상에서 시간의 인식과 관계된 순환적 시간관과 직선적 시간관, 그리고 이런 시간관의 연장선태로서의 순환론적 사회변동론과 진화론적 사회변동론을 상호 비교해 보았다. 여기서 대두되는 의문은 어떤 시간관 내지 변동이론이 더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런 의문과 관련하여 철학자들은 시간을 직선이라고 보는 것이나 순환이라고 보는 것이나 모두 인간의 진리인식 체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무엇이 낫다거나 못하다거나 하는 식의 시비나 진위를 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 사실 옳은 지적이다. 자연의 기초는 공간인데, 우리는 공간 어디에서도 시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시간(운동의 순서)이란 자연의 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의식기능의 산물인 것이기에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선적 역사의 관념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불러 일으키기가 용이하고, 따라서 사람들에게 미래를 동원하는 어떤 구심점을 제시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덧붙혀 기독교적인 종말론의 사유에 익숙한 서구의 사람들은 역사의 가능한 유일한 형태가 직선이며, 직선이외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그들은 순환은 역사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환은 자연에서만 가능한 현상이며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자연의 순환이 고리를 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은 순환을 반복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일차적으로 범하고 있기에, 순환의 역사에는 가치관의 서열이 생겨날 수 없으며 따라서 역사의 목표가 생겨날 수 없고 그렇게 되

면 그것은 역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¹¹⁾ 또한 서구인들은 '역사주의의 파라독스'(paradox of historicism)에 집착해 있다. 그들은 역사란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기독교적 드라마와 같이, 하느님의 뜻과 목적의 전개이며 실현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진보와 천년복지설과 유토피아의 교설이 필수 요소가 된다.¹²⁾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역사적 사실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므로 직선적 시간관이 올바른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은 모든 역사적 사건과 사실의 종말이 그것으로 영원한 끝인가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로마제국이 멸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역사의 끝인 無化이었던가, 아니면 새로운 계도와 정치체계의 발단이 되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 로마가 멸망했기에 중세문화가 시작되었으며, 중세기가 끝났기 때문에 근대사회가 탄생되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중요한 의미는 끝이라는 종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출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즉, 로마는 없어진 것이 사실이나 로마가 사라졌다고 해서 역사가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이다.¹³⁾

이런 점에서 보면 직선적 시간관보다 순환적 시간관이, 진화론적 사회변동 이론보다는 순환론적 사회변동 이론이 사회의 변동이나 역사의 흐름을 보다 정확히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이후 서구식의 직선사관론이 전 세계의 지배적인 사관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경문제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10) 김용옥, "통일론 대강," 김용옥(편), 삼국통일과 한국통일(상권), 서울: 통나무, 1994, 75-76쪽.

11) 위의 책, 71-72쪽.

12) R. 뮐러간들라(저), 이지수(역), 인도철학, 서울: 민족사, 1991, 281쪽.

13) 김형석, 역사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3, 260-261쪽.

III. 근대화 이론과 직선적 시간관

시간은 우리의 인식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직선적으로도 순환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직선적 시간관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불러 일으키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적인 종말론의 사유에 익숙한 서구의 진화론적 사회변동 이론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화 이론이란 이름으로 우리 나라를 위시한 전세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지배적인 가치로 소개되었다.

1. 근대화 이론의 일반적 특징

근대화 이론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의 발전적 변동을 이룩하기 위한 이론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세계질서는 미, 소 양대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이에 따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구제국들의 식민지는 195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독립을 획득해 나갔다. 그러나 이들 신생국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의 식민통치로 인해 고유의 사회적 생산체제로서의 여러 가지 물적 기반들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후였다. 이에 따라 신생국들은 자연히 식민모국과 새로운 제국이었던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했으며, 여기에 미국의 세계 지배구도와 구제국들의 영향력 유지 욕구는 신생 독립국들의 국가발전을 지원한다는 구실 아래 서구식 자본주의의 이식을 피하게 되었다. 특히 유엔은 1960년대를 '발전의 연대'(developmental decades)로 정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세계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 신생국들과 발전도상국들의 국가건설과 가난극복에 적극 지원할 것을 결정하고 나섰다.¹⁴⁾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조국근대화'의 기치 아래 일련의 경제 개발 계획들 및 '재건국민운동'과 '새마을 운동' 등

의 농촌개발 운동을 추진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화 이론은 서구식 모델의 국가발전 전략을 신생독립국에 이식하는 노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배태된 이론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 이론은 그 이론적 구성이 매우 복잡하지만, 고영복은 이들 이론들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정들을 다음의 네 가지로 종합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근대화 개념은 근대화 된 사회의 모습을 '서구의 사회' 즉 서구화로 본다. 따라서 근대화 된 사회의 모습이 전세계 어디서나 실현되어야 할 동질적인 최종산물로 된다. 발전이란 근대성을 후진적인 전통적 지역에 전파, 확산시킴으로써 달성된다. 즉 확산주의를 채택한다. 또한 근대화의 과정 동안 모든 사회가 일련의 비슷한 과정을 밟는다는 점에서 단선적 변동론이다.

둘째, 근대화 된 사회와 대비되는 것이 제3세계의 전근대사회, 즉 전통사회로 본다. 근대화와 전통성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특성들이므로 근대화의 과정, 근대화 된 사회에는 전통사회의 요소들을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제3세계 국민들에게 자신의 전통문화, 전통사회적 요소들을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바라보는 태도와 사고를 형성할 위험이 있고, 서구사회를 바람직스런 것으로 동경하도록 할 가능성이 상당히 짙다. 이 점에서 근대화 이론이 서구사회의 '자민족중심주의적 이론'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셋째, 근대화 이론은 제3세계의 사회구조, 즉 완전히 근대화되지 않은 사회구조를 '이중사회'로 본다. 이중사회란 전통적 구조와 근대적 구조가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이중구조 내지 이중사회가 발전에 한계를 가하고 있다.

넷째, 근대화 이론은 사회변동의 분석단위를

14) P. Gheddo, Why is the third world poor?, New York: Orbis Books, 1983, pp. 23-29.

일국가인 '민족국가'로 잡는다. 즉 세계 속의 각각의 국가 혹은 사회는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변동의 요인도 내부적 요인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제3세계가 덜 발전되거나 근대화되지 못한 원인도 제3세계 사회 자체의 내부적 요인으로 설명하게 되므로 제3세계의 저발전성 자체의 원인은 제3세계가 될 수 밖에 없다.¹⁵⁾

2. 근대화이론의 직선적 시간관의 문제점

신생독립국 내지는 발전도상국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서구를 따라가는 것만이 발전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은 그들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조건에 따라 발전하는 방식을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래의 근대화 이론은 서양에 더 가까워지면 더 근대화되고 그렇지 못하면 덜 근대화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근대화 이론이 직선사관적 성격을 지니기에 가지는 근원적인 문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직선사관의 병폐는 역사 밖에 있는 역사의 허구적 목표를 향해 역사의 현실을 연역적으로 획일화시키며 너무 일률적으로 가치판단을 고정시킨다는 문제를 가진다. 이런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근대화 이론과 연구들에 관한 뛰어난 비판 중의 하나는 팀스(D. Tipps)인데, 그는 '근대화'라는 개념을 이론화 시켰던 사람들은 주로 진화론적 전망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므로, 사회변동을 방향성을 가진 과정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자기 자신들의 사회를 이상화시키고, 진보란 여타의 사회들이 자신들의 사회를 닮아 가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분히 민족중심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또한 그들은 '전통적'이란 의미를 천편일률적으로 규정하

며, 소위 전통적 사회들로 불리우는 사회들의 종류와 그 경험들이 제각기 다양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전통과 근대성의 이분법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¹⁶⁾ 라우어(R. H. Lauer) 역시 팀스와 비슷한 측면에서 근대화 이론의 직선사관적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라우어는 사회변동에 관계되는 네가지의 신화(잘못된 믿음) 중의 하나로 '단일방향성과 미리 상정된 유토피아라는 신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 신화는 모든 사회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점이 모두 같다고 가정하고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이르는 경로도 같다고 가정하는 믿음이다. 이러한 단일 방향성의 신화 -모든 사회가 결국 특정한 하나의 종착점으로 나아가 있다는 관념으로, 때로는 전통과 근대성간의 모순으로 불리워진다-는 모든 사회가 결국 유사하게 될 것이라는 관념으로 '미리 상정된 유토피아'라는 신화에 쉽게 빠진다. 이 신화는 근대적인 산업사회가 인간이 성취하는 마지막 목표라는 주장이나 가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은 발전도상국들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고통없이 근대화(여기서의 근대화란 서구화와 동일한 뜻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된다. 그 사회들이 더 빨리 서구와 같이 되면 될수록 인류는 더 빨리 평화와 성취를 향유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¹⁷⁾

3. 직선적 시간관과 농촌환경문제

이상에서 근대화 이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서구 중심의 근대화이론, 특히 직선적 시간관이 환경에 미치는 부작용을 다루어 보겠다.

15) 고영복, 한글자, 전계서, 381-382쪽.

16) Dean C. Tipps, "Modernization theory and the comparative study of societies: A critical perspectiv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15, 1973, pp. 199-226.

17) R. H. Lauer(저), 정근식, 김해식(역), 앞의 책, 36-43쪽.

윌킨슨(R. Wilkinson)은 [가난과 진보](Poverty and Progress)라는 그의 저서에서 서구 중심의 (경제) 발전철학과 자연환경에 대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

인간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그가 의존하는 자원과 그 자원을 활용하는 데 사용했던 방법을 계속적으로 바꿀 수 밖에 없었다.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부터 차츰 이용이 어려운 자원으로 대체해감에 따라 인간은 점점 더 복잡한 공정과 기술을 사용해야 하게끔 되었다. 광범위한 생태학적 맥락에서 보면, 경제발전은 자연환경을 보다 심하게 착취하는 방법에서의 발전이다.¹⁸⁾

엔트로피 법칙¹⁹⁾이라는 자연과학적 법칙이 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리프킨(J. Lipkin)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생물학상의 진화를 진보의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매우 익숙해 있다. 우리는 이제 진화의 사슬에서 고등한 종은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것으로부터 불가능한 상태로 변환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진화의 과정에서 고등한 종일수록 에너지의 변형기도 우수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듯이 에너지 유통이 증대된 체계는 그 주위에 더 큰 무질서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진화는 생명에 필요한 지구상의 사용 가능한 전체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진화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그것과는 정반대이다. 오늘 날 우리들은 진화가 마술처럼 지구상에 더 큰 가치와 질서를 창조한다고 믿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분산됨으로써 우리의 무지한 눈에도 확실하게 보인다. 그리하여 우리는 물질적 가치에 기울어 있는 진화, 발달, 생산 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놓고 최초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²⁰⁾

이런 지적들은 모두 서구 중심의 진화론적 발전철학이 가지는 내재적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 이론에서는 발전을 '덜 질서있는' 자연세계를 인간이 과학기술에 의해 더 질서있는 물질적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발전은 원래 상태에서 존재하였던 가치보다 더 부가된 가치를 자연 세계로부터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그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삼림의 무차별 벌목, 산성비, 동물 노획 때문에 지구상의 다른 생물들의 종들은 멸종을 거듭하고, 모든 생물들이 삶의 터를 같이 했던 지구는 점점 무자비한 인간의 독무대로 변해 가고 있다. 상품의 대량생산을 지향하고 '소비가 미덕'이라고는 생각하는 현재의 생산방

18) 제레미 리프킨(저), 김명자, 김건(역), 21세기의 새로운 세계관; 엔트로피, 서울: 동아출판사, 1995, 94쪽에서 재인용.

19) 엔트로피 법칙은 열역학 제2법칙으로서 "우주의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고,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즉, 엔트로피는 "더 변환해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서, 열역학 제2법칙에 의거하면, 우주의 삼라만상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부터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얻을 수 있는 형태로부터 얻을 수 없는 형태로,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질서가 없는 상태로만 변할 수 있음을 뜻한다. 예컨대 석유라는 에너지가 타서 열과 탄산가스로 변환되면, 떠돌아 다니는 탄산가스는 더 이상 바꿔 쓸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 즉 엔트로피가 된다. 물이 높은 데 있으면 그것은 에너지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다음에는 엔트로피가 된다.

이런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 즉 엔트로피가 바로 공해에 해당한다. 환경오염은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 형태로 변환된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총량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은 엔트로피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역사를 진보라고 보는 관념은 무너질 것이며, 과학과 기술이 보다 질서있는 세계를 만든다는 믿음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역), 김명자, 김건(역), 21세기의 새로운 세계관; 엔트로피, 서울: 동아출판사, 1994, 46-61쪽).

20) 위의 책, 73-74쪽.

식, 그리고 전통적 구조(농업, 농촌구조)를 뒤떨어진 것으로 보는 근대화 이론은 필연적으로 도시화를 야기하며, 도시화는 다시 대량소비와 자연파괴의 전제가 되는 인구밀집을 부른다. 이렇게 밀집해 살고 있는 인간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유입할 수 밖에 없고, 여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더 큰 낭비와 함께 보다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²¹⁾

근대화이론에서는 소위 전통적인 사회(국가 내에서는 농촌 등이 전통적 생활방식)가 근대화된 서구사회와 비교할 때 생활수준의 향상과 기술발전에 실패했으므로 전통사회는 전적으로 헛되고 비생산적이고 창의성이 없으므로 소멸시켜야 할 존재라고 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례를 들어보자. 전통적 농업사회에서는 대부분 인력과 축력이 에너지원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석탄, 석유, 수력, 원자력들이 주요한 에너지원이 되었고, 에너지 소비량 역시 급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력과 축력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인데 비해 석탄, 석유들은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이다.²²⁾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재생불가능한 에너지가 바로 공해이며, 환경오염은 엔트로피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과학영농이 추구하는 대량의 에너지 흐름은 발전이 아니

라,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사회에 엄청난 무질서와 공해를 야기시키고 있을 뿐이다. 언뜻 보기에 기계화 농업이 되면 1인당 생산성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의 이용 효과, 소비 에너지의 효율면에서 보면 오히려 파멸의 농업이 된다. 과학영농은 대량 생산방식에 의한 논밭의 무기물화, 생산력의 저하, 인공적(화석) 에너지의 지나친 투입에서 오는 환경 오염, 反자연에서 오는 인간 소외감의 증대 등을 초래할 따름이다.²³⁾

IV. 환경문제의 해결: 순환적 시간관의 회복

김용옥은 '기철학의 구조'라는 책에서 "지난 두세기 동안 인류를 지배한 덕목은 자유(freedom)와 평등(equality)이었다. 21세기 인류를 지배하는 덕목은 협동(cooperation)과 소박(simplicity)이 될 것이다."²⁴⁾라고 주장하면서,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작위성을 어떻게 자연성과 조화시키느냐에 의존한다. ...작위만으로 인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에콜로지의 궁극적 관심은 작위에 대한 자연의 회복이며, 직선에 대한 순환의 회복이다. 자연과 순환은 氣의 유한성을 전제로 한다. 르네상스 이래 서구과학의 작위적 근대성은 氣의 무한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²⁵⁾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산업혁명

21) 근대화 이론에 익숙한 우리는 과학기술주의에 대한 지극히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곤 한다. 따라서 지금의 환경문제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은 결코 에너지를 창조할 수 없다. 오직 현존하는 에너지를 사용해 버릴 따름이다. 또한 우리는 사용된 에너지의 재순환을 통해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곤 생각하는 데, 재순환 역시 열역학 제2법칙을 따르며, 소비되는 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 재순환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D. Pepper(저), 현대환경론, 서울: 한길사, 1990, 36-41쪽).

22) 리프킨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건설되었던 문명은 세계를 지속적인 순환의 과정 즉, 탄생, 생명, 죽음, 재생의 순환은 질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제레미 리프킨(저), 김명자, 김건(역), 앞의 책, 116쪽).

23) 후꾸오까 마사노부(저), 최성현, 시오다교오코(역), 생명의 농업: 자연농법을 통한 재자연으로의 회귀, 서울: 정신세계사, 1990, 76쪽.

24) 김용옥, 기철학의 구조, 백두산 신곡, 서울: 통나무, 1990, 127쪽.

25) 위의 책, 126쪽.

의 장미빛 낙관주의에 미망되어 발생한 계몽주의적 세계관을 지배하는 진보(progress)의 시간관은 매우 허망된 것이다. 시간의 일면성만을 고집한 것이며 또 기하학적 시간을 실체화시킨 데서 발생한 오류이다. 근세 서구라파문명 전체가 하나의 그릇된 시간 속에 浮動하는 大夢일 수도 있다.”²⁶⁾라고 말하면서, “직선적 단계에 의하여 설명되는 모든 역사를 나는 경멸한다. 그것은 단순히 무책임하기 때문이다. 宇宙는 궁극적으로 불가지론의 대상이지만, 빅뱅 이론가들이 상상하는대로 宇宙의 진행은 직선적일 수 있다. 그러나 天地는 순환적일 수 밖에 없다. 天地의 직선은 무의미하거나 종말일 뿐이다. 天地는 순환을 탈출할 수 없고 탈출해서도 안된다. 天地가 生命의 모델인 한에 있어서 그것은 순환적일 수 밖에 없다.”²⁷⁾라고 주장하였다.

김용옥의 주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태론적 환경관²⁸⁾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구가 소개해 준 직선적 시간관에서 벗어나 우리 고래의 순환적 시간관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는 직선적으로 발전하며, 역사의 각 단계는 그 이전의 단계에 비해 진보한다는 생각에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변동의 미덕을 찬미하게 된다. 그러나 끊임없는 변화와 변동의 결과는 무엇인가? 지구상의 제한된 부존 예너

지의 낭비와 그로 인한 각종의 공해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아니고 무엇인가? 만일 모든 인간이 옛날에 비해 더 선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보다 풍족한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역사는 진보하며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2천년 전의 고조선사회보다 정신적 자유와 인간적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세에서의 진보나 발전의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대에 정신적 삶의 내용이 축적되어 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사실 우리는 선조들이 개척해 준 문화적 유산을 물려받으며, 선인들이 남겨 준 과학과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삶을 쌓아가기 때문에 시간 및 역사와 더불어 진보와 발전의 필연적인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2백년전 백리를 가던 시간이면 지금은 지구의 반을 날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백년전의 선조들보다 더 가치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확언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인구문제, 공해문제, 환경문제 등으로 역사의 비극적인 앞날을 점치고 있다. 우리가 발전시킨 과학과 문화가 더 급속도로 인간의 파멸을 가능케 할 가능성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역사의 현실이다.²⁹⁾

역사에는 진보와 더불어 퇴보를 가져올 가능

26) 위의 책, 117-118쪽.

27) 위의 책, 118쪽.

28) 생태학(ecology, Okologie)은 희랍어 oikos(집, 주거지, 마을)와 logos(학문)을 합쳐서 만든 용어로서 1866년 Ernst Haeckel이 ‘유기체의 환경세계에 대한 관계에 관한 총체적 학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처음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생태학의 연구 대상은 외부로부터 구획되어 있는 총체이거나 그로써 대변되는 종으로서의 유기체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와는 달리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유기체의 자연적인 관계망과 실존조건 등이다. 최근 환경을 둘러싼 생태학적 관심의 제고(실제로 대중 매체나 각종 법규에 등장하는 생태학적 환경 이해의 단초들, 그리고 생태경제학, 보존생물학, 경관생태학, 복원생태학 등과 같은 생소한 전문영역의 갑작스런 생성)는 그러므로 유기체, 특히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나아가 인간의 자연에 대한 관계에 심대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영석, “생태패러디임의 문학적 수용”,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현대의 새로운 패러디임과 인문학, 서울: 백의, 1994, 299-300쪽).

29)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형석은 “만일 역사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역사는 그 목적을 향해 전진한다면 목적에 가까워지는 것은 진보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역사에 참여하는 삶에게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역사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인에게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도 역사적 집단이나 역사 그 자체가 목적을 갖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라고 하였다 (김형석, 위의 책, 227-228쪽).

성도 얼마든지 있으며, 발전과 더불어 퇴락의 가능성도 있다. 역사에 있어서 흥망성쇠는 당연한 길인 것 같기도 하다. 흥했기 때문에 망하는 때가 왔고 성했기 때문에 쇠하는 법칙과 질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즉, 역사에는 발전과 퇴락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으며 진보와 후퇴의 요소가 공존해 있다. 퇴락이 없는 발전도 역사는 아니며 후퇴가 없는 진보만의 역사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인간세의 모든 발전은 반드시 兩面, 즉 正面이 있으면 반드시 그 負面이 있다. 역사는 순환이요, 인간세도 순환이다. 역사의 현실은 발전하는 것이지만 진보하지는 않는다. 진보는 독단이며 가치관의 편협성에서 유래된 허구일 뿐이다.

이렇듯 역사를 순환적 과정으로 보게 되면 가장 좋은 사회란 가장 적은 변화를 겪는 사회라는 사고로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세계관에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이 발전이라는 식의 개념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성장이 세상에서의 보다 큰 가치와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생각, 역사가 원래의 완전한 상태에서부터 계속 붕괴되는 과정이고 원래의 자산을 소모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상적인 상태란 이러한 붕괴과정을 가능한 늦추는 일이다. 즉 우리 세대의 사명은 가능한 한 변화로부터 보존된 세계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태양열 이외의 자원은 아주 아껴서 쓰겠다는 그런 생활자세 그것이 우리의 자손에 대한 제일의 윤리가 되어야 한다.

V. 결 론

환경문제는 오늘 날 우리의 주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농촌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자연 환경의 우월성을 안고 있었던 농촌 지역도 방충제, 제초제, 농약 등 화학 물질의 남용과 과다한 화석 연료 에너지의 사용 등으로 크게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들어 농촌 개

발분야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환경에 대한 역행과 왜곡의 정도를 낮추어 자연이 가진 고도의 자정능력에 한껏 기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가 당면한 농촌의 환경문제는 이런 미봉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농촌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신봉해 온 종래의 개발이론 그 자체가 자연적 생태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종래 우리는 어떤 개발이론을 신봉해 왔는가? 그것은 근대화 이론이다. 근대화 이론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선진공업국들이 식민지에서 갖 독립한 신생국들의 경제개발을 겨냥한 발전이론으로서 그 성격은 경제중심적이고 서양중심적이었다. 특히 근대화 이론은 기독교적 종말론에 입각한 직선적 시간관에 함몰되어 있었기에, 전통사회를 서구식의 근대사회와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근대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서구사회의 전통사회적 요소는 해체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우리 나라 역시 지난 30년동안 이런 근대화이론에 충실하였으며, 그 결과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부작용 역시 만만찮다. 특히 경제성장의 조그마한 부산물에 불과하리라 치부했던 환경문제가 이제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는 종래 추진해 왔던 근대화 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 근대화 이론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진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주어 왔다. 근대화 이론은 자연이 빨리 변형될수록 발전은 더 빨라지며, 세계는 더 질서있게 되고, 시간은 더 많이 절약된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간세계에 진보란 없다.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퇴보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순환하는 것이다. 순환적인 사유, 유기체적 사유 속에는 단선적 진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다. 유기체의

순환시스템 속에서는 모든 국면 자체가 전체와 역동적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겨울은 봄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직선적 발전의 끝이라기 보다는, “겨울이 가면 봄이 멀지 않으리”라는 시귀처럼 다른 시작을 위한 끝일 뿐이다.

이같은 사유에서는 특정한 사태나 대상의 가치가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으며, 특정 부분에서의 지나친 확장은 영양에 있어서처럼 전체의 균형을 위협하고 파괴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순환적 사고 속에서는 가장 좋은 사회란 가장 적은 변화를 겪는 사회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 줄 것이다. 역사가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부터 계속 붕괴되는 과정이고 원래의 자산을 소모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상적인 상태란 이러한 붕괴과정을 가능한 늦추는 일이다. 즉 우리 세대의 사명은 가능한 한 변화로부터 보존된 세계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목적을 ‘생태계 파괴의 극소화’,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에 두는 현명함을 보여야 한다. 저엔트로피 사회, 물질의 소비를 억제하고, 검소가 중심과제가 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농업의 경우에는 ‘지속적 농업’이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사람과 동물의 힘을 경작에 보다 많이 활용하고, 땅을 유지하고 비옥하게 하는 데는 자연 퇴비나 순환경작 방법을, 작물의 병충해 예방에는 천적을 이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허망한 물질적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우주와 형이상학적인 일체를 이루는 데서 얻는 해방감의 경험에 두어야 한다. 환경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과 사회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공간적 사회와의 동일감만 아니라, 다음의 자손, 후손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시간적인 후손과의 동일감이다.

VI. 참고 문헌

1. 경상대학교 인문학 연구소(편), 현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인문학, 서울: 백의, 1994.
2. 고영복, 한국자, 사회학개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87.
3.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사회학적 관심, 서울: 박영사, 1986.
4. 김용욱, 도울세실, 서울: 통나무, 1990.
5. _____, 기철학의 구조: 백두산신곡, 서울: 통나무, 1990.
6. _____(편), 삼국통일과 한국통일(상권), 서울: 통나무, 1994.
7. 김형석, 역사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3.
8. 민경배, 신세대를 위한 사회학 나들이, 서울: 나남, 1994.
9. 오갑환, 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박영사, 1980.
10. 한국농업교육학회,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6권 제4호, 1994.
11. 데이비드 페퍼(저), 이명우 등(역), 현대환경론: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철학적, 민주론적 이해, 서울: 한길사, 1990.
12. 제레미 리프킨(저), 김명자, 김건(역), 21세기의 새로운 세계관: 엔트로피, 서울: 동아출판사, 1994.
13. R. 뵈리간들라(저), 이지수(역), 인도철학, 서울: 민족사, 1993.
14. R. H. 라우어(저), 정근식, 김혜식(역),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변동의 유형, 메카니즘, 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4.
15. 후꾸오까 마사노부(저), 최성현, 시오다교오꼬(역), 생명의 농업: 자연농법을 통한 대자연으로의 회귀, 서울: 정신세계사, 1990.
16. Gheddo, P., Why is the third world poor, New York: Orbis Books, 1983.
17. Tipps, D. C., A critical perspective,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15, 1973.